

人間相互作用에 관한 濟州島民의 社會意識*

—民俗資料를 中心으로—

朴 在 煥

I

어떠한 特定 社會의 構造 및 動態는 단 하나의 모델 設定이나 接近方法으로는 그 全部를 立體的으로 把握할 수가 없다.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多様な 學問的 領域의 存在 自体가 이를 立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同一의 領域에 있어서도 各者가 갖는 學問的 關心 및 問題意識에 따라 多様な 接近方法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社會現象의 本質的 側面 및 實態를 그 나름대로 把握하여 露出하려는 社會學에 있어서도 問題는 마찬가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爲하여 우리는 구태어 수많은 研究테마 및 그 方法을 일일이 例學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各種의 摸索도 보다 더 廣範한 領域으로 나뉘 分類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組織의 3가지 水準이라는 範疇로 그 研究 對象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社會는 그 社會 全體的 水準에서 于先 把握 可能하다 社會의 各部分을 包括的으로 連結시키는 이러한 組織 原理에 關한 探究는 그 範圍에 있어서 가장 巨視的 接近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社會 構成의 中間 領域이라고 할 수 있는 各種의 集團 및 組織體의 社會 關係에서 出發하여 特定 社會의 具體的 動態를 說明할 수 있음을 안다.

社會現象의 相當部分이 集團 間의 具體的 作用 關係에서 派生할 뿐만아니라 이러한 中間 領域으로부터의 照明은 全體的 水準의 巨視的 接近方法이 갖지 못한 利點 때문에 其實 많은 學者들의 出發點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特定社會의 內容은 上記의 二大 水準으로 그 總體를 全部 把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社會가 個人의 集合體에 不週하다는 社會名目論을 主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社會 構成의 最小單位가 되는 個人과 個人의 相互作用을 捨象한 社會를 想定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모든 社會關係의 出發은 그 社會 構成員間의 相互作用의 擴散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個人과 個人間의 水準에서 社會의 具體的 모습을 說明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個人과 個人間의 相互作用은 서로의 關心 乃至 利害關係에 依해서도 潤色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의 個人이 他人에 作用하고 그 反作

* 拙稿는 玄平孝教授 金榮敦教授 玄容駿教授 韓昌榮教授 그리고 秦聖麒濟州民俗博物館長의 助言과 資料 提供에 힘 입은 바가 큼

2 는 문 집

用을 받는 것으로 把握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넓은 意味의 對人的 交流 (personal communication)라는 말로도 表現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精神內容이 他人에게 傳達되는 狹義的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人間관계가 유지되고 發展되는 메카니즘¹⁾으로까지 理解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重要 關心事로 浮刻되고 있는 이러한 個人間的 相互作用이 결코 社會 全體的 組織 原理 乃至 社會 集團間的 關係와 遊離되어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實際에 있어서 人間의 모든 社會 活動은 全体 社會와 不可分の 關係 속에서 作用한다. 個人의 具體的 行爲樣式이 既存社會의 文化에 依해 定型化된다는 單純한 事實만으로 그 不可分の 關係를 類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人間 相互作用乃至 對人的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立體性을 爲해서는 언제나 全体社會와의 關係와 그 社會가 갖는 文化的 特性과의 接合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커뮤니케이션 研究에 있어서 社會全體的 眺望 乃至 文化人類學的 觀點의 必要性이 論議되는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特定 社會의 文化的 特性을 把握하는 人類學的 接近方法에 있어서도 文化體系를 社會의 相互作用의 體系 乃至 커뮤니케이션 體系로 바라보는 觀點²⁾亦是 相當한 示唆를 던져 주리라 생각된다. 이와 關聯하여 Michael Argyle은 그의 「社會的 相互作用」이라는 冊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部分의 人類學的 研究가 社會的 相互作用에 關한 問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社會行爲의 보다 微妙한 側面에 있어서 나타나는 文化間的 差異에 關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매우 적다는 事實은 매우 不幸한 일이다」³⁾

이러한 모든 言及은 人間의 社會的 相互作用이 社會 全體系와 갖는 깊은 連關性을 端的으로 指摘한 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觀點 下에서 本 研究는 濟州島라는 特定 社會가 갖는 社會 文化的 特性을 人間의 相互作用의 側面으로부터 眺望해 보는 데 그 目的이 있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濟州島는 그 地域의 特殊性에 依해 他 地方과 比較해 볼 때 文化的 相當 部分에 있어서 아직도 그 固有性이 維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社會도 全体 社會의 變化 狀況과 無關해서 存在할 수 없음도 또한 分明하다.

어떤 意味에 있어서든 特定 社會의 固有性이 높은 社會일수록 急變하는 外部의 全体社會의 狀況의 影響이 주는 波及效果가 相對的으로 더 큰 수도 있다. 이 때의 文化衝擊은 表面的으로 認

1) Charles Cooley의 定義는 그 代表的 例

2) E. T. Hall,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1959 結論部分 參照

3) Michael Argyle, "Social Interaction" Tavistock Publications, London, 1976, p.79

知될 수 있는 各種의 行動文化 上에서 特別 銳角의 으로 나타나기 쉽다. 그러한 경우 行動類型上의 特異性이 그 社會 固有性에 依한 發露인지 外部的 影響과의 混合인지 區別하기가 힘들게 된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特定社會 構成員의 意識 및 觀念은 表面的 行動類型에 比해 相當期間 存續되는 傾向이 있다. 우리의 關心의 焦點이 되고 있는 濟州島民의 社會的 相互作用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濟州島의 對人的 相互作用의 固有性은 現在 觀察되는 行動類型에서도 把握 可能한 것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 相互作用에 關한 共通된 意識上 特性에서 보다 有力한 示唆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想定할 수 있는 것이다. 本研究의 出發이 具體的 行動類型이 아닌 相互作用에 關한 意識에 비롯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特定 地域社會의 共通된 意識은 그 地域社會 構成員이 共有하는 固有의 文化形態에서 推論해 낼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事實이다. 우리는 그 共有의 文化形態 中에서 民俗資料 特別 民謠 및 俗談 등을 中心으로 本研究의 主要 關心事인 濟州島民의 對人的 相互作用에 關한 意識을 類推하고자 하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 作業이 濟州島의 社會, 文化的 特性을 總體的으로 把握하는 데 결코 充分한 것이 되지 못한다.

더우기 本研究의 커다란 制限點이 되기도 하는 基礎資料의 貧困은 特定の 結果로서 一般化시키는 데 對한 相當한 危險을 따르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既存의 民俗資料 및 其他의 文獻이 결코 無用之物에 不遇한 것은 아니다. 한 地域社會의 文化的 遺産이 그 地域社會 構成員의 共通된 生活經驗의 凝結體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속에는 다른 社會와 區別되는 特異한 要素가 반드시 存在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分析이 이러한 特異性의 一部라도 捕捉하고 있다면 濟州島民의 相互作用에 關한 社會意識에서 出發하는 本研究가 濟州島의 社會, 文化的 特性을 把握하는데 적어도 하나의 조그만 端緒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II

特定 社會의 具體的 모습은 그 社會가 形成되어 온 各種의 環境과 不可分의 關係를 갖는다. 따라서 濟州島의 社會, 文化的 特性을 理解하려는 우리의 努力은 于先 濟州島라는 特定 地域社會가 成立 發展되어 온 그 背景에 對해 簡略한 考察을 必要로 하게 한다. 우리는 그것을 크게 濟州島가 갖는 自然的 條件과 지금까지 變化해 온 歷史的 狀況이라는 2가지 側面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 흔히 人間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影響을 주는 要因은 人間 存在가 處해 온 具體的인 歷史 狀況이라고 한다. 이 점에 있어서是一般적으로 큰 異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言及하고자 하는 濟州島의 自然的 特異性을 論議하는 데 있어서 대두되는 自然的 環境과 人間社會 間의 動態에는 언제나 當然한 일이지만 조심스런 但書가 따른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

4 는 문 집

해서 特定 社會의 諸條件이 地理學의 一元論 乃至 決定論⁴⁾으로는 결코 說明될 수 없다는 事實이다. 人間이 自然을 改造 變形하는 오늘 날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自然的 諸條件이 人間 社會의 動態를 決定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自然條件은 人間 自身이 그들의 社會의 特性을 決定하게 하는 하나의 限界 (ultimate limits)를 마련해 줄 뿐이라고 보는 것이 一般的 見解라 할 수 있다.⁵⁾ 그러나 近代의 科學技術이 發達하기 前, 다시 말해서 人間의 社會의 諸勞動이 原始的으로 赤裸裸한 水準에 머물러 있을 때 人間의 自然的 諸條件은 때로는 直接的으로까지 社會活動에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自然의 社會에 對한 拘束力이 現代에 올 수록 줄어지는 反面, 過去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增大된다는 이와 같은 事實은 매우 重要的 意味를 갖는다. 그것은 特定社會의 社會, 文化的 諸特性이 現代에 와서 갑작스럽게 形成된 것이 아니라 長久한 時間 속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속에는 過去의 刻印이 強하게 남아 있기 마련이다.

특히 特定 社會의 經濟活動이 一次 産業에 거의 全的으로 依存하여 營爲될 경우 自然的 諸條件이 社會生活 全般에 미치는 影響力은 결코 看過할 수 없는 重要 要因으로 浮刻됨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文脈에서 볼 때 濟州島의 自然環境은 어떠한가?

우선 그 位置에 있어서 (北으로)韓半島(木浦와의 거리 約 88마일), 南쪽으로 日本列島, 西쪽으로 南中國, 東北쪽으로 日本의 對馬島와 對하고 있다.

이러한 位置 上의 特色은 韓半島의 中心 文化的 影響으로부터 相對的인 固有性을 維持하는 데 相當한 도움을 주게 되었고 反面에 外來族의 빈번한 侵入을 結果하는 一要因으로 作用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 典型的인 例를 元의 支配와 無數한 倭寇의 侵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地形 上으로 보면 섬 中心部에 海拔 1950m의 漢拏山이 솟아 그 中核을 이루고 南北보다 東西의 길이가 긴 橢圓形의 形相을 나타낸다. 또한 地表面이 透水性이 強한 火山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地下로 浸水하여 伏流하다가 海岸地帶에 이르러 湧出한다. 이러한 濟州島의 地形上의 特徵을 1924年 濟州島廳의 記錄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⁶⁾

- ① 많은 小 獨立山은 圓錐形이고 中央에 火口가 있다.
- ② 河川에는 流水가 없고 地下水는 海岸에서 湧出
- ③ 島民은 이 海岸湧水를 먹고 山間 部落民은 滯溜의 惡水를 飲用한다.
- ④ 飲料水의 關係로 部落은 海岸에 생겼다.
- ⑤ 住民은 熔岩屑를 住宅, 道路, 田畝, 城壁에 利用한다.
- ⑥ 熔岩은 海岸에 延長되어 海産物의 棲息地가 된다.
- ⑦ 貝砂는 處處에 있고 耕地의 改良에 쓴다.

4) 李萬甲譯; 社會學理論 首都文化社. 서울 1963 pp76~78

5) Richard T. Lapiere, "Social Change"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1965. p.214

6) 石宙明, "濟州島隨筆" 濟州島叢書. 4. 寶晉洋印刷所 서울 1968. p.17

⑧ 耕地는 黑經火山灰로 되어 播種後牛馬로 踏田하여 發芽를 容易하게 한다.

한편 한라산과 바다의 두 自然의 相互作用에서 일어나는 特殊한 氣候型(多變性 日氣變化)을 일으키는 濟州島는 흔히 三多로 손꼽히는 바람이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強한 곳이다. 特히 겨울에는 北風이 10m/s를 넘을 때가 보통이며 때로는 20m/s까지 육박할 때가 허다하다. 이러한 強風은 海上作業의 中斷은 勿論이고 陸地와의 交通을 杜絶시킨다.”

以上の 自然的 諸條件은 生産業에 그대로 反映이 되어 1972年の 統計를 미루어 보아 土地利用 狀況을 보면 總面積 181,991ha中 林野가 64.3% 밭이 27.2% 논이 0.6% 垆地및 其他가 7.9%로 農業에 있어서는 밭 농사가 그 全部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⁷⁾ 그러나 上記의 農地의 比率은 우리의 關心이 되는 過去로 올라 갈 수록 相對的으로 더 감소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四面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漁業에 있어서는 沿近海의 暖流性 魚族과 海洋性 定着生物에 거의 依存하는 바가 크다. 特히 海岸部落에서는 水産人口의 過半數가 濟州 水産業의 特色이기도 한 裸潛 漁撈의 海女들이다. 事實, 過去에 있어서는 海岸部落의 女性 全部가 海女였다고 推定해도 우리가 아니다. 이런 環境 下에서는 <地瘠民貧>이란 말이 안 나올 수 없으니 孝宗 二年에 濟州牧伊로 온 李元鎮은 그의 耽羅志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는 것이다.

「高麗 文宗十二年 門下省奏 耽羅地瘠民貧 惟以木道經紀謀生 州記 土性浮燥 墾田 必驅牛馬以踏之 連耕二三年則 穀穗無實 不得已 又墾新田 功倍獲少 所以民多困窮」⁸⁾(傍點은筆者)

이와 같은 記述은 옛 資料 어디서든 散見되는 바지만 하나만 더 그 實例를 들면 耽羅記年에 다음과 같은 文句가 보인다.

「總大臣筵奏曰 此島地勢 出高多風災 谷 深多水災 土薄多旱災 三災並侵 年必多歉 若實納稅 民無以生……」⁹⁾(傍點은筆者)

이는 모두 自然的 條件이 島民의 生活에 그대로 作用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三災가 並侵하여 해마다 凶年아닌때가 별로 없었다는 事實은 記錄에도 나타나는 바 石宙明先生도 일찌기 그의 濟州島隨筆에서 李朝時代의 飢饉과 賑政이 27回나 된다고 記述하고 있다¹¹⁾ 그러나 金 錫翼의 耽羅記年에 나타난 記錄을 보면 卷之一에 벌써 高麗末의 大飢饉에 對한 言及이 보이니 忠烈王

7) 禹樂基, “濟州道” 大韓地誌 1. 韓國地理研究所, 1968. p. 87.

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司,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篇” 서울 1974. p. 17

9) 李元鎮編, “耽羅志”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1976. p. 214.

10) 金 錫翼, “耽羅記年” 卷之二 瀛州書館, 1918.

11) 石 宙明, 前揭書 p. 71

6 는 문 집

三年에 일어난 大飢 事件이 바로 그것이다.¹²⁾ 뿐만아니라 飢民과 凶年에 對한 記錄은 卷之二 (太祖 元年~顯宗十五年)에 이미 18回, 卷之三 (肅完 元年~正祖二十四年)에 35回, 卷之四 (純祖 元年~光武十年)에 29回, 都合 82回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빠진 것을 勘案하면 그 숫자가 더 增加될 것임은 勿論이다. 한편 이러한 自然的 制限은 穀物의 種類에 있어서도 貧弱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니 400年前의 穀物類는 밭벼, 기장, 피, 조, 콩, 메밀, 쌀, 보리에 不過했다¹³⁾이렇게 볼 때 濟州島의 自然的 諸條件은 島民의 生活에 有形 無形으로 作用해 왔음을 充分히 類推해 낼 수 있는 것이다. 人智가 發達되지 않은 社會에 共通的으로 보이는 샤머니즘이 濟州島에서는 特히 寶庫라 할 정도로 豊盛하다는 事實도 人間이 克服할 수 없는 限界로 다가섰던 濟州島의 自然的 諸條件과 결코 無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一般적으로 指摘되는 濟州島民의 勤勉性 亦是 이러한 文脈과 相關關係를 갖는다. 한편 이와 같은 自然的 環境과 鬭爭해 온 濟州島의 一般的 歷史狀況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구태어 高良 夫三神人으로부터 始作되는 神話時代以後의 歷史를 張皇하게 記述할 생각은 없다. 보다 正確한 年代記와 歷史的 事件의 繼起現象에 對한 說明은 우리의 研究領域을 넘어서는 作業일 뿐만아니라 本 研究의 必要性에도 맞지 않는다.

단지 濟州島가 처음에는 하나의 獨立된 部族國家였다는 事實에서 出發해도 못한 것이다. 三國時代에 이미 濟州島는 耽羅國으로서 百濟 (文周王二年476年)와 朝貢關係를 맺고 新羅가 그 勢力을 떨치자 新羅에 屬國이 되었다는 記錄이 있지만, 그것은 形式上的 問題에 그쳤다고 봄이 妥當하다. 高麗 太祖 21年 (938年)까지도 耽羅는 稱王을 하고 있었으며 肅宗 10年(1105年)에야 毛羅라는 國號를 廢止하여 耽羅郡이라 했다는 事實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濟州島는 이때부터 相當한 變化를 받게 된다.

특히 三別抄亂이 가져다 온 蒙古에의 一世紀間에 걸친 被支配는 各種 生活樣式에 커다란 影響을 끼친 것으로 推定되고 있는 바다. 하지만 高麗 末에서 부터 本格的으로 始作되는 外部文化 (그것이 韓半島의 것이든, 元의 文化이든)와의 接觸이 새로운 視野의 水平을 열어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濟州島의 立場에서 보면 外部로부터의 強要에서 出發했다는 事實. 따라서 一般庶民의 生活에 있어서는 從來의 耽羅時代의 土豪들의 強壓에 外部의 壓制와 收奪이 더 追加되어 한층 困窮하게 됐다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南槎錄에도 이러한 弊害에 對한 言及이 있으니 첫째가 民間의 衣食의 主要 根據가 되는 말을 함부로 뺏아하는 封送馬의 弊요 둘째가 소를 끌어다가 수령의 遊宴에 함부로 쓰는 生産價의 弊요 셋째가 官吏들이 도둑과 다름 없이 住民을 收奪하는 營軍官之弊요 넷째가 一方的인 서울과의 무역의 弊요 다섯째가 點馬過程

12) 金 錫翼, 前揭書 卷之一

“忠烈王三年……春大飢民多闔戶而死王遣崔碩來巡視…”

13) 石 宙明, 前揭書. p. p5~6

에 나타나는 各種의 弊癘이 그것이었다¹⁴⁾ 이것은 勿論 水山의 一角에 不過한 것이다. 어느 社會든 中央政府의 存在가 民衆의 生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奪取만 行할 때 밑으로부터의 反撥은 必然的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高麗 李朝의 統治者들은 濟州島를 “難治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島民에 對하여 無時로 虐政의 熒포를 부렸다. 가난한 農漁民들도 악착같이 살아 남기 爲하여 暴政 反對의 鬨을 한라산에 울려 勇감하게 싸웠다. 歷史上 나타난 것만도 勿驚 高麗朝에 84件 李朝에 104件의 記錄이 있다. …」¹⁵⁾

이같은 事實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當時의 濟州島民에 있어서는 濟州島의 官吏가 大部分 虐政의 水準을 넘어 도둑질¹⁶⁾을 일삼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 것이다. 더우기 계속되는 凶年만큼이나 잦았던 倭寇의 來侵은 濟州라는 地域이 벗어나야 될 桎梏처럼 여겨졌으리라 이러한 切迫感이 下流層에 銳角의 形으로 나타날 것임은 勿論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濟州民의 出陸과 流亡 現象의 端緒를 잡게 된다. 仁祖때에는 各司 奴婢의 出陸數가 萬餘名에 이르렀다는 事實은 앞에서든 말하든 바와 같이 地瘠民貧에 依한 生活苦에다 男丁의 賦役이 너무 重했음 뿐 아니라 住民의 生命과 財産을 危殆롭게 한 倭賊의 侵入 그밖의 軍役¹⁷⁾ 외에도 官吏의 橫暴로부터의 脱出에 크게 起因하고 있음을 類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도 오래 동안 持續될 수가 없었으니 仁祖 七年 (1629年) 八月에는 급기야 濟州島民의 出陸을 嚴禁하고 또 耽羅女人과 陸地人과의 婚姻을 禁할 것을 國法으로 定했을 뿐 아니라 女人의 出陸을 特別히 더 嚴禁하게 하는 出陸禁止令이 내리게 되었다¹⁸⁾ 이 禁令은 純祖 末 (1830年頃)까지 約 二百年間 濟州社會를 支配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一世紀에 達하는 元의 濟州支配가 濟州文化에 미친 影響이 얼마나 甚大한가를 論議한다. 分明히 한 社會가 他民族의 文化속에서 一世紀에 걸치는 長期間을 隸屬되었다는 事實은 결코 看過할 수 없는 一大 重大事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前記한 出陸禁止令은 元의 支配 못지 않게,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影響을 濟州의 社會와 文化에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期間이 單純히 元의 支配 期間보다 2倍나 되는 200年間이라는 事實에서만이 아니다.

이 禁令은 陸地人과의 婚姻을 國法으로 禁했을 뿐 아니라 陸地에의 進出까지도 封鎖함으로써 文化的 交流를 杜絶시켰다. 나아가 陸地와 濟州는 하나의 國家 속에 包含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4) 金 尚憲, 南槎叢 卷之四,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pp. 155~157

15) 韓 東龜, 濟州島一三多의 備災史一國 書刊行會, 東京 1975. p. 96

16) 石 宙明, 前揭書 p. 58

17) 金 泰能, “濟州民의 流亡과 出陸禁止” 제주도 27호, 1966. p. 102.

18) 前揭書. p. 108

禁令이 規制하는 바가 마치 다른 나라의 國民과 같은 違和感까지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 時期가 近世에 屬한다는 事實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陸地로부터의 流入은 可能해도 濟州로부터 出陸은 禁止된다는 事實은 當時 中央에서 濟州島가 流配地로 觀念되었다는 事實과도 깊은 關聯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러한 事態가 濟州島民에게 끼친 否定的 側面을 金 泰能先生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以上の 特殊事情이 (中略) 또 島民의 氣質과 性格에 미친 영향은 不少하였던 것이니 그들은 오랫동안 陸地本土住民들과 人的交流乃至 相從이 없었던 關係로 大陸的 性格의 調和를 얻을 機會가 없었기 때문에 本然의 島國의인 性格과 아울러 幽閉生活의 우울감에서 온 短氣하고 排他的이고 회의적인 性格의 人으로서 자랐던 것이며 心理的으로는 異俗的인 生活에서 오는 孤獨感和 疎隔感 乃至 萎縮感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다.」¹⁹⁾

勿論 우리는 위와 같은 推論이 하나의 假說로서는 成立될 수 있다고 보지만 얼마나한 現實的 妥當性을 갖는지는 알 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主觀的 價値判斷의 色調가 너무도 強하게 潤色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러한 價値判斷도 否定的 影響에 局限해서 言及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前記의 出陸禁止令이 招來한 濟州島의 孤立性에 對해서는 云謂할 수 있다고 본다. 勿論 우리는 이렇게 強要된 人爲的인 社會, 文化的 孤立性의 意味가 한 두마디의 規定으로 說明될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 自体가 獨立된 體系나 分析을 要求하는 重要 研究對象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社會, 文化的 孤立性에 對해 우리가 關心을 갖는 이유는 그것을 包含한 濟州島의 歷史的 狀況이 앞에서 考察한 自然的 諸條件과 함께 우리의 重要關心事인 濟州島民의 社會意識과 不可分의 關係를 갖기 때문이다.

I

한 社會의 特性을 把握하기 爲하여 흔히 “社會的 性格”이나 “基本的 퍼스널리티 構造”라는 概念이 使用된다. 元來 文化人類學者 (예를 들면 Ruth Benedict, Margaret Mead 등)들에 의해 使用되기 始作했던 이 概念은 社會에 따라 獨特한 人間類型이 있으며 가장 빈번하게 發見되는 特定 퍼스널리티가 存在한다는 事實에 着眼하여 特定 社會의 文化的 類型을 把握하는 데 相當한 示唆을 던져 주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한 社會의 人間的 特質 (흔히 常識의 水準에서는 氣質이라는 말로 使用되지만) 即 그 社會構成員의 心理的 構造와 全体 社會의 文化間에는 不可分의 相關關係가 存在한다는 前提 下에서 出發한다. 分明히 한 社會의 文化가 그 社會構成員이 共有하고 있는

19) 前掲書, p. 110

價値, 觀念, 知識의 體系를 넘어서 包括的으로 行爲樣式으로까지 定義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은 人間的 要素로부터 全体 文化的 特徵을 類推하는 上記의 接近方法은 論理的으로 充分히 그 妥當性을 賦與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學者들은 그만두고라도 심지어 市井人에 이르기까지 日常, 한 社會의 特性을 그 社會構成員이 갖는 心理的 特徵으로 壓縮해서 說明하려 하는 것도 이러한 文脈에서 볼 때 전혀 根據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人間的 特質에서 出發하는 上記의 接近方法도 相當한 問題點이 뒤따른다. 그것은 어떠한 特性이 과연 特定社會의 “基本的 퍼스널리티.”인가 하는 問題다. 한 社會에 들어가서 表面的으로 捕捉되는 그 社會 構成員의 心理的 特質이 얼마나한 共通性을 갖는가 하는 問題는 그렇게 單純한 것이 아니다.

特定 個人的 心理的 次元을 넘어서서 所謂 基本的으로 共有되고 있는 特質로서의 社會的 性格을 把握하는 데에는 特殊 事例의 一般化라는 誤謬와 함께 認知者의 主觀的 要素가 介入될 可能性이 相當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把握된 “基本的 퍼스널리티.”上的 特質이 얼마나 本質的인 側面인가 하는 問題도 그리 쉽게 判斷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限界性은 어떻게 克服될 수 있는가? 于先 常識의 言及이 되겠지만 判斷과 分析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自己의 主觀介入을 統制하는 일이다. 이를 爲해서 同一한 對象에 對한 다른 사람의 分析 및 言及을 參考할 必要가 있음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人間的 特質에서 出發하는 微視的 接近方法의 制限點을 보다 큰 文脈에서 補完하는 方法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該當社會의 全體的 構造에 對한 理解와 認識의 程度가 높을 수록 有利하다. 萬若 그러한 全体規模의 水準에서의 眺望이 充分하지 못하거나 本 研究에서처럼 오히려 그 自体가 하나의 겨냥된 間接的 目的의 일 경우, 特定 社會가 立地해 온 社會, 文化的 背景에 對한 斷片的 知識도 相當한 示唆를 던져 주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觀點에서 出發할 때 우리의 當面 關心事가 되고 있는 濟州島民의 一般的 퍼스널리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把握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對한 考察을 매우 거칠게나마 簡略하게 言及해보기로 하자.

일찍이 六堂 崔 南善先生은 濟州島民의 性格을 冒險과 遠征과 堅忍과 機敏 속에서 찾았다고 한다.²⁰⁾ 그리고 이러한 濟州魂은 濟州人이 그들에게 不足한 自然의 恩澤을 克服하는 데 必要한 것으로 把握되었다. 한편 石 宙明先生은 그의 濟州島 隨筆에서 島民의 特性이라는 項目 下에 9가지를 指摘하고 있는데²¹⁾ 그 中에서 心理的 特性으로 抽出해낼 수 있는 項目을 보면 排他的 自尊心, 傳統的 勇猛性, 正義나 共同利益을 爲하여 同一步調를 取함, 生活力의 強盛 등이 있다. 그러나 同書 人性이라는 項目에는²²⁾ 長點으로 陸國人에 比하여 ① 氣概에 富하고 ② 勤儉實의

20) 石宙明, 前揭書. p. 47

21) 前揭書. p. 102

22) 前揭書. p. 111

美風이 있어서 經濟思想이 發達하고 ③ 依賴心이 없고 ④ 自營自足을 尊重하는 風이 강한 一面 短點으로 ① 精疑心이 強하고 ② 排他性이 濃厚하여 ③ 共存共榮의 精神이 적다고 指摘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앞에서 引用한 金 泰能先生의 否定的 側面에 局限된 言及을 記憶한다. 그것은 短氣, 排他, 懷疑的, 劣等感으로 要約할 수 있다.²³⁾ 한편 1975年 開發濟州 創刊號에는 “濟州人을 말한다.”라는 題下에 濟州道民性의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 側面에 對해 論述하고 있다.²⁴⁾

여기에서 言及되고 있는 肯定的 側面을 보면 ① 平和的이고 協同的이다. ② 義理에 밝고 進取的이다. ③ 誠實하고 인내심이 強하다. ④ 勤勉하고 自主的이다. (以上은 金 奉玉先生의 指摘) 또한 ① 儉素 ② 勤勉 ③ 自立性 (以上은 玄 容駿教授의 指摘)으로 나타나고 있다. 反面에 그 否定的 側面에 對해서는 (玄 容駿教授의 言及) ① 個人主義 ② 劣等意識 ③ 排他性 등이 指摘되고 있다.

이와 같이 濟州島民의 精神의 特質도 論者에 따라 各己 相異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의 指摘 속에도 相當部分에 있어서 共通된 面이 보인다. 단지 어떤 側面에 焦點을 두느냐에 따라 順位上의 差異가 나타날 뿐이다. 그 共通된 要素를 살펴보면 肯定的인 心理的 特性으로 勤勉, 儉素, 自立, 忍耐, (혹은 強韌), 氣概 등이 돋보이고 否定的 要素로서는 排他性, 劣等意識, 懷疑的 態度가 言及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몇가지 共通된 特性이 濟州島民의 一般的 퍼스넬리티의 全体構造를 說明하는 데 充分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單純히 指摘되고 있는 共通된 特性이 全体構造把握을 爲해서 그 側面에 있어서 너무나 限定된 것에 不遇하다는 事實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많은 外國學者들이 特定對象의 特徵을 多樣한 側面에 對한 羅列式 記述로서 把握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特徵을 아무리 羅列해도 實體가 把握된다는 保障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共通된 特性이 作用하는 動態(dynamics)의 理解를 爲해서는 前記한 項目들의 指摘만으로는 너무나 未洽하다는 意味에서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몇가지 共通된 特性에 對한 言及은 心理的 全体構造를 把握하는 데 相當한 暗示的 端緒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濟州島民의 心理的 特性을 理解하는 데에는 濟州島民이 立地해 온 具體的 狀況에 對한 認識이 相當한 示唆를 던져 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周知하는 바와 같이 퍼스넬리티는 主体가 外部的 條件과의 끊임없는 相互作用에서 形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濟州島民이 處해 온 具體的 狀況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于先 濟州島의 自然的 條件이 가져다 준 勞動의 絶對性에서 찾을 수 있다. 火山灰土로 덮인 地表는 한 마디로 “地瘠.”이라는 말로 壓縮되어 表現되었다. 물이 地下로 伏流해서 海岸에서 湧出하기 때문에 農事의 大部分이 돌로 이뤄진 밭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土産으로 指摘되던 밭벼, 기장, 피, 조, 콩, 팥, 메밀, 보리 등의 穀物도 豊盛한 것이 못되고 보리는 잘 견실되지 않아서 마치 가라지나 피 모양을 하고

23) 金泰能, 前掲書. p.110

24) 濟州開發問題研究所, “開發濟州” 創刊號. 1975. pp.28~36

있는 것으로 記述되었던 것이다²⁵⁾ 이러한 與件 下에서 生活해야 했던 濟州人에게는 勞動은 絶對 命題로 다가서지 않을 수 없었다. 原始的 生産狀態에서는 어디에서든 人間勞動이 차지하는 比重이 높기 마련이지만 그 勞動의 對象이 되는 自然的 環境이 豊饒롭지 못할 때에는 勞動의 量과 質은 그대로 生存을 決定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濟州島의 境遇 勞動은 生活을 爲해 單純히 不可避한 一般의 水準을 넘어서 生存에 있어서 絶對的인 것으로 浮刻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狀況 下에서는 男, 女의 區別이 커다란 意味를 가질 수가 없다. 모든 家族構成員은 自然과의 鬪爭에서 自己의 生存을 保障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潛女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採取하여 끌어 올리는 데 “男女相雜 不以爲恥.”²⁶⁾ 한다는 것은 너무도 當然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耽羅志에 나오는 “土風 凡勞役之事 皆使女…라는 句節도 勞動의 絶對優位性에 男女의 區別이 없음을 反證해 주고 있다. 勿論 우리는 濟州島의 特徵的 風俗으로 흔히 指摘되고 있는 女性의 勤勞精神의 두드러진 現象이나 이와 相當한 聯關性을 갖는 女多現象이 單純한 自然的 制約이라는 條件을 넘어서 濟州島의 特異한 歷史的 狀況과 깊은 相關關係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確實히

「土地가 비좁고 토박한 孤島에 三別抄亂, 蒙古의 占領, 倭寇의 來襲, 工物의 進上, 賦役의 過重, 貪官汚吏의 苛欲誅求 凶災, 海難, 出稼, 四·三事件 等の 歷史的 諸要因으로부터 생긴 流離, 離散이 決定的으로 男少女多의 景²⁷⁾

으로 만들게 됐다는 데 對해서는 커다란 異議가 없다. 그러나 앞의 引用에서도 言及되고 있는 自然的 條件은 우리의 關心의 焦點이 되는 人間勞動의 第一義的인 對象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어쨌든 濟州島民에 있어서 勞動은 男女老少 區別없이 絶對的인 位置를 占有했던 것이다. 이러한 勞動의 重壓은 그러면 具體的으로 어떻게 島民의 心像에 떠 올랐을까? 다음의 간단한 民謠는 그 壓縮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내 어머니도 날 아니 낳고
네 아버지도 날 아니 낳고
짐진 산이 배빌어 낳았네」²⁸⁾

이렇게 勞動은 벗어나려 해도 벗어 날 수 없는 그들의 桎梏이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宿

25) 李 健, “濟州風土記”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 196

26) 前掲書, p. 198

27) 韓東龜, 前掲書, p. 96

28)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서울 1965, p. 38

命처럼 限界지워진 勞動도 그들의 生活을 潤澤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그 結果 濟州島民謠의 特質로서 本土보다 強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側面으로 生活苦의 侵蝕이 늘상 指摘되고 있는 것이다.²⁹⁾ 그리고 이러한 生活苦는 무엇보다 가장 悲痛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생각하니 눈물이 진다.
 눈물이 지니 발등으로 진다.
 이 설움을 받아 받아
 내 삶은 말 남들어 심상
 남 삶은 말 내들어 심상
 내 속에서만 뭉뚱그린다.
 열두간장 다 썩여봐도
 종다 할 사람 하나 없더라」³⁰⁾

「내 것 있어 남 줘도 좋지
 내 것 없어 남의 것 먹으니
 예삿말에 집이로구나」³¹⁾

上記의 2例謠는 生活苦를 吐露한 極히 一部分의 悲歌에 不遇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기 “耽羅志”에도 “杵歌聲苦”라 하여 절구를 찻는 女人들의 노래가 듣기에 너무나 애처롭다고 記錄하고 있는 것이다³²⁾ 生活에 시달리면 어느 누구도 餘裕를 가질 수가 없다. 멧돌을 갈면서 부르는 그들의 노래는 累積된 설움의 歎息이거나 勞動의 피로를 一時的으로 잊기 爲한 道具에 不遇했다. 하여

「부르걸랑 풍류라 말라
 부르걸랑 노래라 말라
 가슴답답 애답답하니
 속 풀리라고 부르는 구나」³³⁾

라고 吐露하거나 혹은

29) 金榮敦, “濟州島民謠의 形態上特色” 제주도 12호, 1963. p. 163

左永助, “韓國民謠의 研究”; 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 1965.

30)31)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서울 1965. p. 16. p. 27

32) 李元鎮編, 前揭書. p. 215

33)34) 金榮敦, 前揭書. p. 189. p. 190

「노래하거든 수상흥다 말라
 일도 부친 노래더라
 꿈닐면서 상일이더라
 소리로나 이겨라한다」³⁵⁾

이렇게 그들의 心中을 나타냈던 것이다. 따라서 “잠도 자려면 여원잠”을 자야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民謠가 非風流的³⁵⁾이구나 無技巧의³⁶⁾인 것으로 把握된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이러한 特性은 日常의 言語生活에서도 쉽게 認知되는 면이기도 하다.

그러면, 앞에서도言及한바와 같이 하나의 桎梏으로 주어진 勞動의 過重 및 生活苦에 對해 濟州人은 어떻게 對處했는가. 주어진 狀況에 對한 그들의 反應樣式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 反應樣式이야말로 우리의 關心의 焦點이 되고 있는 濟州人의 基本的 퍼스넬리티 特性을 捕捉하는 데 가장 重要한 關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結論의으로 말해서 濟州人의 心理的 特性 中에 흔히 肯定的으로 指摘되는 勤勉, 儉素, 自立도 따지고 보면 生存을 保障받기 爲한 必然的 對應策이 아니었는가? 萬若 이러한 假說이 成立될 수 있다면 이들 諸特性이 發顯될 수 있는 보다 根源的인 反應樣式的 存在도 想定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民謠에 눈을 돌려보자.

「산 속에도 사람이 살고
 물 속에도 사람이 산다.
 사람 못 살 어느 섬 있더나」³⁷⁾

「죽어 가면 썩어질 고기
 할은 썩으니 시내가 되고
 뼈는 썩으니 진토가 된다.
 살 때 움직여 남이나 피어리」³⁸⁾

앞의 民謠에서 우리는 무엇을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은 分明히 不敗의 信念³⁹⁾일 수도 있고 自立의 노래⁴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보다도 現實的 삶에 對한 強한 肯定이 含蓄되어 있다. 가장 重要한 것은 勞動의 過重이 안겨다 주는 悲痛性에 沒入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5) 金榮敦, “濟州島民謠의 形態上特色” 제주도 12호, 1963, p. 163

36) 左永助, 前掲書, p. 219

37) 38)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 潮閣 서울 1965, p. 30 p. 15

39) 金榮敦, “濟州島民謠의 內容上特色” 濟州學報 5號, 1963

40)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 潮閣 서울 1965, p. 15

限界위에서도 살아 남는 것이었다. 따라서 現實的인 生活이 어떤 무엇보다 第一義的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거친 파도를 헤쳐가면서 “요네 槽작 부러진들 요내 팔목 부러지랴.”고 외치는 이들에게 꿈과 理想은 二次的인 意味에 不遇했다. 사랑도 자기의 生存 다음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정든 임이야 남을 준들 요 노작이야 남을 주랴」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傳統的 儒敎의 基準에서는 生命과 同一視되었던 女子의 정조도 極限狀況 下에서는 아무런 意味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引用되는 「허리 아래를 남을 준들 요 노야 상책 남을 주랴」라는 民謠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濟州島民의 強한 現實性을 읽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앞에서 指摘되었던 勤勉, 儉素, 自立, 等の 心理나 特性도 自存을 保障하기 爲한 이러한 現實的 認識 및 態度에서 비롯되는 當然한 歸結로 把握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現實的 志向性은 後述되는 言語生活上의 現場性과도 相關關係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濟州人의 心理的 特性의 否定的 側面으로 言及되는 排他性 劣等意識 懷疑的 態度 등은 어떻게 把握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孤立된 周邊文化>라는 文脈에서 理解하려고 한다.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濟州島는 그 特殊한 地理的 歷史的 條件에 依해 陸地와 相當히 隔離되어 왔다. 統領 中央과의 關係가 이뤄졌을 경우에도 濟州島의 立場에서 볼 때 有利한 것이 라기보다 收奪 및 犧牲의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狀況은 一般的 孤立性 위에 또다른 要素를 潤色하게 한 要因이기도 했다. 어쨌든 社會가 孤立되어 있을 경우는 열려진 社會 (opened society)와는 相異한 特徵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社會적으로 孤立되어 있는 集團에서는 그 構成員間에 自己領域에 對한 意識이 매우 높아 진다. 또한 社會적으로 움츠러 든다. 그리고 그에 對한 침해는 強한 反撥을 받게 된다...」⁴¹⁾

勿論 이와 같은 一般的 傾向도 構成員의 퍼스넬리티와 集團加入 및 다른 活動에의 적극성여부에 따라 相當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孤立된 社會는 大部分의 社會活動이 限定된 範圍內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反應傾向이 熾烈해 질 수 있는 素地가 많다. 또한 內集團意識에 따라 우리感情 (we-feeling)도 한相當히 짙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편 한 文化의 主된 影響圈에서 疎外된 周邊文化의 構成員은 그 支配的인 文化에 對해 傾斜된 態度를 가질 수가 있다. 그것이 때로는 劣等意識으로 表出될 수 있다. 그러나 孤立된 周邊文化의 動態(dynamics)가, 그렇게만 限定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社會變動에서는 오히려 周邊文化가 새로운 意味로 浮刻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41) Irwin Altman & William W. Haythorn, "The Ecology of Isolated Groups" in Behavioral Science 1967. pp. 179~181

이러한 文脈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日常 強한 價值的 色調를 띄고 論議되어온 濟州島民의 心理的 特性을 보다 根源的인 水準에서 照明해보려고 했다. 거기서 推論해 낸 特徵이 現實的 삶에 對한 強한 志向性和 孤立된 周邊文化의 特異性이었다. 勿論 우리는 이와 같은 暫定的 推定이 濟州島民의 心理的 特性을 捕捉하는 데 充分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實體 把握을 爲한 또 하나의 可能한 視角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IV

지금까지 우리는 濟州島가 處해 온 自然的 歷史的 狀況 및 그와 密接한 相關關係를 갖는 것으로 推定되는 濟州島民의 心理的 特徵을 매우 거칠게나마 略述했다. 그러면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濟州島民의 社會關係 乃至 相互作用의 樣式 및 그에 對한 意識은 具體的으로 어떤 樣相을 띄고 있는 것인가 그에 對한 問題로 우리의 視線을 돌려 보자.

우리는 그것을 크게 家族을 中心으로한 相互作用의 樣式과 그 밖의 社會關係로 大別해서 考察하려 한다.

于先 家族關係를 살펴 보기로 하자.

濟州島의 家族關係를 論議할 때 언제나 指摘되는 것이 家族構造 및 그 制度上의 特異點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家族構造上의 實際的 核家族性 및 相續에 있어서의 均分主義로 壓縮해서 表現할 수 있다.

家族構成上의 核家族性은 于先 家族의 크기에서 나타난다. 가까운 例로 1968年 家口當 平均人口가 陸地部에서는 6.21人인데 反해 濟州島의 경우 4.72人으로 나타나 그 差異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傾向은 다른 調査에서도 同一하게 確認되는 側面이다.⁴²⁾ 그러나 濟州島 家族의 核家族性은 單純히 上記한 家族의 크기에서보다 實際 生活上 나타나는 經濟單位로서의 家族構成에서 銳角의 으로 나타난다. 濟州에서는 住居는 同一 領域內에서 함께 하면서도 父母와 結婚한 子息의 食口는 經濟的으로 完全히 獨立된 生活을 營爲하는 것이 一般의 現象이다. 대개의 경우 長男도 分家를 시켜 獨立된 住居를 마련해 주지만 같은 울타리 內에 함께 生活할 경우에 있어서도 <바갈채>와 <안채>로 나누어진 父母와 結婚한 子息의 經濟生活은 不干涉이 不文律로 되어 있다. 즉 常食과 經濟가 <바갈채>와 <안채>에 있어서 따로 따로 獨立돼 있는 것이다. 萬若 長男이 結婚해서 그 살림 規模가 安定돼 있지 못한 경우는 <바갈채>에서 長男과 子婦가 起居를 하고 父母는 其他의 未婚子女와 <안채>를 占有하면서 獨立된 生活을 한다. 또 다른 子息을 거의 分家시킨 후 少數의 未婚子女와 經濟的으로 一定 水準에 도달한 長男의 食口가 그 住居를 함께 할 경우는

42) 玄 容駿,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1)"

제주대학논문집 2집 1970, pp. 39~40

여기에서는 경북의 하회지방과 제주도의 가구당 평균인구를 비교했는데 하회가 5.1人~5.7人 사이의 변화를 보이는데 반해 제주도는 4.4人~4.7人的 동을 보이고 있음을 例示하고 있다.

보통 父母는 그未婚子女와 함께 <바갈채>에서 生活을 하고 <안채>는 長男의 食口가 使用하게 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經濟生活은 獨立的으로 이뤄진다. 그러면서도 對外的으로는 한 食口로서 觀念한다. 住民登錄簿上에는 모두 同一世帶로 나타나 있는 것이 그 좋은 例라 할 수 있다.⁴³⁾ 이러한 特性이 西歐의 核家族(nuclear family)과는 다른 側面이기도 하지만 陸地의 一般的 家族과도 判異한 構造임은 再言할 必要도 없는 事實이다. 더우기 全体社會의 變動에 따라 家屋構造가 이러한 <바갈채> <안채>의 從來的 區分이 不可能하게 변모할 경우, 또한 分家한 子息의 職業이 從來의 農業 및 漁業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나 住居上의 領域이 完全히 달라질 때 濟州島의 이와 같은 家族類型은 韓國의 傳統的 類型인 大家族으로 環元될 可能性보다는 核家族化할 可能性이 더 클 것임도 充分히 짐작할 수 있다. 最近에 實施한 老人問題에 關한 調查⁴⁴⁾에서도 그와같은 性向을 類推할 수 있다. 이러한 所以로 우리는 濟州島家族의 一般的 特性의 하나를 <實際的 核家族性>으로 把握하는 것이다.

한편 濟州島 家族의 또 하나의 特性은 相續 및 分家原則에서도 나타난다. 陸地에서는 大部分이 長男의 絶對的 優位로 壓縮되는 데 反하여 濟州에서는 모든 아들에게 均等하게 配分하는 것이 特徵이다. 이 때의 均等하게라는 말은 嚴格한 意味에서 算術的 概念이 아니다. 實際에 있어서는 長男이 보다 相對的으로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때문에 「...결국 外形上 末子 殘有制이면서 長男優越相續制를 겸한 制度라 할만하다」⁴⁵⁾

그러나 그 差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와 關聯하여 다음의 記述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長男부터 순서로 結婚을 시키되 父母의 모든 財産을 均等하게 分財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生活할 만한 土地와 집 한채를 尙한하여 주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이러한 均等主義와 分家原則에서 末子가 부모의 집을 갖기도 하며 長男 分家以後 末子分家까지 經濟的 變動이 생기어 살림이 늘며는 末子가 더 많은 土地를 받을 수 있고 이와 反對로 실림이 줄 경우, 末子가 적게 받을 수도 있다.」⁴⁶⁾

이러한 事實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陸地에 비해 父母의 長男에의 依

43) 玄容駿, “家族”, 濟州島文化財 및 遺蹟綜合報告書, 제주 1973, p. 72

44) 韓昌榮, “濟州道老人問題에 關한 調查研究” 제주대학논문집 9집 발표예정

이 調查에서 우리의 關心事가 되는 老人의 子息과의 同居여부를 보면 中山間部落에서는 59.8%가 別居 40.2%가 同居로, 海岸部落에서는 49.2%가 別居, 47.4%가 同居로 나타나 있다. 한편 생계대책에 관한 응답을보면 中山間부락에서는 자신의 해결이 50%, 자녀의존이 46.3% 해안부락에서는 49.2%가 자신해결, 자녀의존이 41.5%로 나타나고 있다.

45) 玄容駿,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Ⅰ)” 제주대학논문집 1집 제주 1970, p. 53

46) 李光圭, “社會”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篇,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서울 1974, p. 52)

存도가 相對的으로 낮다는 事實뿐만아니라 反對로 長男의 立場에서는 그 義務感에 있어서도 陸地에 比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祭祀에서도 類推될 수 있겠다.

「…이러한 均分主義를 基礎로 하는 出自律이 祭祀權에까지 影響을 주는 것이니 兄弟가 여럿이 있을 경우 父母祭祀, 祖父母祭祀, 曾祖祭祀 등을 분담하여 나누어 지내거나 兄弟가 적으면 父의 祭祀 母의 祭祀를 나누어 모시기도 한다……濟州道의 出自律은 韓國의 陸地部에서는 도저히 유래를 볼 수 없는 特色있는 出自律로서 均分主義를 原則으로 하는 것이 마치 中國의 出自律과 極히 類似하다.」⁴⁷⁾

모든 子息이 均等하게 財産相續을 받고 結婚하면 原則的으로 分家를 하며, 萬若 父母와 住居를 같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經濟的으로 獨立된 家計를 꾸려나가는 이러한 家族制度上的 特異性은 家族構成員間的 社會關係에도 相當한 影響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시집살이의 苦衷을 吐露한 民謠에서 잠깐 살펴 보기로 하자.
시집살이가 고달픈 것은 陸地와 濟州의 區別없이 共通된 現象이다.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렵디까
아이고 애야 말도 마라
소라 님은 시아버지에
암탉닭은 시어머니에
문어닭은 시방님에
줄락닭은 시누이에
이내시집 살려하니
고추장이 맵다한들
내 시집보다 더 매우라(濟州)⁴⁸⁾ <榜点是筆者>

.....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구렁새요
동생하나 할림새요
시누하나 뽕죽새요
시아저비 뽕중새요

47) 前掲書, p. 52

48) 金 榮敦, 前掲書, p. 111

남편하나 미련새요
 나하나만 썩는새새⁴⁹⁾

.....

..... (慶山地方) <傍點은 筆者>

위의 두 民謠는 시집식구에 對한 描寫를 매우 諷刺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言及되는 食口에 있어서 큰 差異가 보인다는 事實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그것은 濟州의 民謠에선 言及되는 시집식구가 오직 시부모, 시누이, 세사람에 不過한데 反해 慶山地方의 民謠에선 시부모 시누이는 勿論, 동서, 시아주머니까지 5사람이나 된다. 筆者가 살펴본 濟州民謠中에 같은 처지의 동서에 對한 言及은 全無했다. 이 같은 事實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앞에서 우리가 論述한 濟州家族의 分家原則과 直結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에 反해 陸地에서는 같은 시집살이처지의 동서와의 關係가 언제나 言及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濟州의 시집살이는 그 人間關係에 있어서 陸地보다 比較的 가벼운 것이라 推定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시집식구에 對한 態度는 매우 極端的인 樣相으로 나타난다. 陸地에서도 시집식구에 對한 원망이 民謠에 나타나 있지만 다음과 같은 激烈한 表現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시아버지는 개놈의 자식
 시어머니는 잡년의 딸년
 울 안에 든 내 낭군은
 찬 이슬만 맞는구나]⁵⁰⁾
 [시아버지야 거꾸러져라
 긴긴 담뱃대 내 차지네
 시어머니야 거꾸러져라
 고방구석도 내차지네
 시누이년아 거꾸러져라
 [살레]구석도 내차지네
 서방님아 꺼꾸러져라
 동네 부랑자 내차지네]⁵¹⁾

특히 마지막 引用된 民謠에선 自己를 中心으로한 現實과 實利에 對한 意識이 強하게 보인다.

49) 任 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서울 1961. p. 140

50) 51) 金 榮敦, 前編書. p. 114 p. 116

시집식구에 對한 이러한 表現은 濟州島民의 言語驅使上의 투박성과도 連結이 되는 것이지만 <아버지 아들 사이에도 범벅에 선을 그어서 먹으라>는 濟州俗談에서 暗示되는 그 獨自的 經濟觀念 및 無條件 服從에의 拒否意識과 關係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집식구에 對한 拒否反應이 深化될 경우 심지어

「시편 친척 사귀지도 말라
앞에서는 좋은 말 하다가
돌아서면 잡음 말 한다」⁵²⁾

는 觀念으로까지 擴大되기도 한다. 이러한 態度的 根柢에는 濟州女人의 特有的 自立意識이 깔려 있음은 勿論이다.

「...뺨겨지 숙여 가는 임은
마누라 죽은 임이네
얼굴들어 가는 년은
살림가른 년이네...」

한마디로 말해서 비록 살림을 가르고 시집에서 돌아 가는 길이라도 얼굴을 숙이지 않고 오히려 들고 갈 수 있는 姿勢, 이것이 濟州女人의 自意識이다.

한편 家族構成의 가장 本質的 側面的 하나인 男便과 婦人과의 關係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端的으로 勞動을 中心으로 일어나는 그들 사이의 役割 分化로 說明할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濟州의 婦人이 行하는 勞動量은 陸地에 比해 相當히 많다. 一般的인 水準에서 過去 男女의 勞動領域을 보면, 男子의 일로 손꼽히는 部分이 牛耕, 播種, 家屋建築 및 修繕, 牛馬, 牛馬車의 取扱, 賦役 등이었고 女子는 家事, 裁縫, 育兒 等 陸地 一般 婦女의 일은 勿論 其外 家計, 農作, 潛水, 飲料水運搬, 其他 一切의 일⁵³⁾을 擔當했다. 即 크게 힘이 드는 일 以外에는 女子가 生産作業에 關係하지 않는 일이 거의 없다. 所謂 「女子는 제고장 장날을 몰라야 팔자가 좋다」는 육지의 一般的 俗談은 濟州에서는 現實感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勞動量의 相對的 過重은 어떤 結果를 낳는가?

먼저 指摘할 수 있는 것은 經濟力을 中心으로 擴散되는 婦人의 實際的 影響力이다. 그것은 婦人의 強한 自立意識과 連結된다. 極端的으로

52) 金榮教, 前揭書. p. 120

53) 石宙明, 前揭書. p. 101

「땀 뿜은 섬에
삼시 굶으며 해녀질 하여
한푼 두푼 모은 금전
정든 입술 값에 다 들어가네」⁵⁴⁾

의 경우처럼 經濟가 거의 全的으로 婦人의 勞動力에 依存할 때는 傳統的 儒敎原理에 바탕한 男便의 權威가 언제나 搖之不動할 수가 없는 것이다. 生産勞動을 통한 家計에의 寄與도가 큰 사람은 家族內에서 潛在的 影響力을 갖기 마련이다.

한편 婦人이 生産勞動에 關與하는 程度가 높을 수록 所謂 婦女子 固有의 內房의 일에 沒頭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럴 餘裕와 餘力이 없는 것이다. 掠奪經濟에서처럼 男子가 모든 經濟 및 生産 活動을 專擔하다시피 할 때는 男子는 그들의 能力을 그들의 婦人이 行하는 各種의 有閑의 活動으로 代行해서 誇示할 수도 있지만 (Thorstein Veblen, 1953) 濟州에서처럼 女子의 勞動量이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는 狀況 下에서는 Thorstein Veblen의 그 誇示的 消費는 그만두고라도 婦女子 固有의 일을 遂行하는데도 時間的 精神的 餘裕가 없게 되는 것이다. 男便과의 關係에서 흔히 指摘되는 濟州婦人들의 투박성 乃至 奉仕의 態度의 不足等은 이러한 文脈에서 說明된다. 그것은 一般的으로 奉仕의 行動이 各種의 勞動으로 부터 自由로운 餘裕(leisure)에 比例하여 精巧化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이 日常的 關係에서 언제나 無理없이 受容되거나 理解되는 것은 아니다. 具體的 相互作用에는 個人의 欲求水準과 比較水準이 항상 介入된다.

「行爲에 있어서 原則은 個人에게 2가지 방식으로 一般的으로 作用한다. 直接的으로는 義務와 間接的으로는 期待로서...어떤 사람의 義務는 罔罔 他人에 있어선 期待가 된다.」⁵⁵⁾

夫婦關係에서의 義務와 期待가 順調롭게 行해지지 않을 때 흔히 妾 또는 시앗이 問題가 됨은 韓國社會의 一般的 現象이었다. 시앗과 그 男便에 對한 怨望은 어디에서나 共通된 것이지만 「本土 民謠의 妾謠에서는 妻가 妾에 對한 怨望 乃至 咀呪로 되어 있는 데 濟州島民謠의 妾謠에서는 男便에 對한 怨望과 咀呪로 되어 있으며 또 妾 自身の 고민상을 告白하고 있는 것이 特異한 點」⁵⁶⁾으로 指摘되고 있다. 또한 그 怨望의 程度가 激烈하다.

54) 金榮教, 前掲書. p. 225

55) Erving Goffman, "Interaction Ritual"

Anchor Books Doubleday & Company, New York, 1967. p. 49

56) 左永助, 前掲書. pp. 157~158

「전치 구박 양첩한 늬아
대천 바다 가운데 들어
안개에 길잃어 달진 밤 새라」⁵⁷⁾

「정너가슴 썩이는 늬은
여뀌밥에 소금장 먹여
대천바다 가운데 들어
물을끓어 거꾸러져라」⁵⁸⁾

「통부처도 시앗이라하면 몰아진다」하며

「살갓보릴 거죽체 먹어도 시앗이랑 相對를 말라」⁵⁹⁾고 하면서도 男便에 對해 이처럼 強硬한 態度를 보일 수 있는 根據는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서도 言及한 婦人의 生産勞動에의 깊은 關與다. 勞動을 통해 體得한 生活에의 自信心이 갈려 있다. 그 위에 周邊文化의 特異性이 加重되어 있다. 傳統的 儒教倫理로 代表되는 七去之惡의 妬忌및 男便에의 不服從이 招來하는 危險도 그렇게 큰 拘束力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濟州島의 夫婦關係에는 陸地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對等關係乃至 平等意識이 內在되어 있음을 感知하게 된다. 男便의 立場에서는 비록 婦人의 位置를 傳統的 基準에서 無視한다. 해도 婦人의 潛在된 意識에 있어서서는 그것이 그대로 受容되지 않을 可能性이 相當히 存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背景 下에서 「아홉아기 열아기 낳아도 시집에서 업어서 갈 아기 하나없다」고 吐露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家内生活中 女子主管의 行사가 많은 것도⁶⁰⁾ 陸地에 比해 婦人의 чин정출입이 비교적 빈번한 것도⁶¹⁾ 모두 生産勞動에서 부터 擴散되는 婦人의 位置와 깊은 關係를 갖는다.

또한 子女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海女의 아이는 낳아서 일주일 단에 밥을 먹는다」⁶²⁾고 할 程度의 社會化方式으로 養育할 뿐만아니라 老後에 있어서도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陸地에서 볼 수 없는 獨立的 態度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V

家族内の 人間關係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家族構成員의 役割分化및 그에 바탕한 力學關

57) 53) 金 榮敦, 前掲書. p.95 p.97

59) 秦 聖獻, 濟州도속담 (제2집) 1959. p.59

60) 61) 李 光圭, 前掲書. p.48 p.37

62) 秦 聖獻, 濟州도속담 (제2집) 1959. p.102

係로서 어느 程度 類推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밖의 社會關係에 對한 濟州島民의 一般的 意識 狀態는 어떻게 捕捉될 수 있을 것인가? 複雜多岐한 問題로 눈을 돌려 보자.

우리가 그 밖의 社會關係가 捕捉하기에 너무나 複雜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一義的으로 把握되기에 具體的으로 너무나 廣範한 諸側面을 包含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言及한 一般的 心理構造와 不斷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作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諸社會關係에서 特徵的으로 浮刻되는 極히 斷片的인 側面에 焦點을 맞출 수 밖에 없다.

먼저 言語習慣上의 特異點에 對해 簡略하게 言及해 보기로 하자. <存在의 집>으로 까지 把握되는 言語 속에는 그 言語를 使用하는 集團의 共通意識이 溶解돼 있기 때문이다. 濟州島 方言의 特色은 여러 角度에서 考察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關心事가 되고 있는 人間關係의 側面에서 볼 때 第一 먼저 浮刻되는 것이 尊待法, 人稱代名詞 및 呼稱 等이다. 濟州島 方言에 尊稱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는 事實은 一般的으로 指摘되고 있는 바다. 陸地에서 三人稱 尊稱으로 <당신>이 使用되는 데 反해 濟州에는 그에 相應하는 말이 없다. 또한 윗 사람에게 對해서도 <나>라는 人稱代名詞가 아무 무리 없이 使用된다. 인사법과 關聯한 다음의 說明을 보기로 하자.

「濟州島民의 生活態度도 그들의 言語에서 분석될 수 있다. 島民에게 안녕하십니까」式의 人事法이 없다. 발에 가는 것 같으면 “뺏디 감수가” 노는 장면이면 “놀암수가.” 어디 가는지 판단이 어려운 때면 “어디 감수가”로 된다. 직선적이며 실용적이며 소박한 인사들이다. (中略) 단어에 존칭이 발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위 존칭보조어간—시—가 안 쓰인다. “어디가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라 함은 근래의 일이고 보통은 “어디 감수가”로 充分하다.」⁶³⁾

所謂「主體尊待」의 形態素—시—가 濟州島 方言에는 元來 잘 안 쓰였던 것⁶⁴⁾은 무엇을 말하는가?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主體尊待>는 對話의 相對者가 누구든 關係없이 言述되는 行爲의 主體에 對한 尊待法이다. 이와 關聯하여 玄 平孝教授는 濟州島 方言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國語尊待法史上에서는 일찍부터 使用되어 온 <主體尊待法>이 方言(濟州島) 言衆들의 言語生活에서는 아직까지 確立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方言尊待法의 特徵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方言에서 <主體尊待法>이 確立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方言言衆들의 意識構造와 또 이 地域의 社會構造와도 關聯되는 문제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强한 論說을 要한 것이므로 別稱로 미룬다.」⁶⁵⁾

한편 對話의 相對者를 높이는 <對者尊待法>은 아주 發達되어 그 形態素가—우—, —日—, —마

63) 玄 容駿, “제주도민의 검소생활”, 제주도 43號 1970. p. 209

64) 玄 平孝,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74. p. 70

65) 前揭書. pp. 71~72

삼 등 3가지나 分析될 수 있다고 論述하고 있다⁶⁶⁾

이 같은 特徵은 우리에게 매우 興味롭고도 重要的 端緒를 提供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人間關係에서의 尊待法이 動作의 主体에 對해서는 確立돼 있지 못하고 具體적으로 對話를 통해 이뤄지는 人間關係의 그 相對者에 對해서는 아주 多樣하게 發達돼 있다는 事實은 社會關係의 重點이 <現在的 狀況>에 集中돼 있음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尊待는 <나>와 <너>사이에서 問題가 되는 것이며 <나>와 <너>사이에 言及되는 第三의 主体는 벌써 尊待의 領域 바깥에 存在한다. 지금 당장 이뤄지고 있는 關係및 그 相對者가 보다 重要的 關心事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社會關係에 對한 意識上的 特徵을 <現場性乃至 現在的 狀況에의 重視>로 把握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特徵은 우리가 濟州人의 一般의 心理的 特性的의 하나로 浮刻시킨 強한 現實의 志向性과도 不可分의 關係를 갖는 것처럼 想定된다.

한편 家族關係에서도 言及한 男,女의 社會關係를 一般의 水準에서 다시 要約해 보자. 古來로 濟州의 特色으로 指摘돼 온 「女多」는 人口의 絶對數에 있어서도 妥當한 表現이라 할 수 있다. 最近의 濟州統計年報는 勿論, 南槎錄의 記錄에도, 泉靖一의 濟州道の 統計, 그리고 李朝實錄에서 뽑은 石宙明의 濟州島隨筆에 나타난 여러 對比表에도 女子가 男子보다 훨씬 많았던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女子 100名으로 基準해서 80以下로 男子의 性比가 떨어진 例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더우기 男子의 賦役이 심했던 李朝時代에는 男兒를 出産해도 官家에 알리지 않은 例가 많았다. 女多男少 現象이 耽羅志의 記錄대로 중도 妻子를 거느리고 비록 걸인일 지라도 妻妾을 두게 됐던 原因인지는 確認할 수 없으나 우리의 關心은 오히려 男女相雜해도 不以為恥할 수 밖에 없던 女子의 勞動活動에 集中된다. 陸地보다 女子의 活動이 더 활발할 수 밖에 없을 때 絶對數上的 差異는 倍加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女性의 活動이 相對적으로 많을수록 儒教的 内外의 區別觀念은 그 빛을 잃기 마련이다. 女子에 對한 邪物視 不淨觀念이⁶⁷⁾ 濟州社會에도 例外없이 存在했지만 그 拘束力이 女性活動을 制約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婦女子가 男子와의 접촉을 욕지보다 빈번히 갖게 됨은 當然한 現象이라 할 수 있다. 더우기 女子의 生活態度가 男子에의 一方的 依存이 아니고 強한 獨立性을 가질 때 男女關係의 決定은 보다 自立選擇的이 될 可能性이 높다. 萬若 濟州에서 「離婚 再婚의 風이 強하고 따라서 그것을 그리 흥잡지 않는다」⁶⁸⁾는 指摘이 事實이라면 그것은 上記의 文脈에서 理解될 수 있다.

濟州人이 갖는 社會意識上的의 또 하나의 特徵으로 우리는 外部世界에의 羨望을 들 수 있다. 그것은 于先 自己限界의 克服에 對한 欲求와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勿論 우리는 다음과 같은 意識이 存在함을 否認하지 않는다.

66) 前掲書, pp. 56~71

67) 秦 聖獻, 남국의 금기어연구,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73

68) 石 宙明, 前掲書, p. 101

「원의 아들 원인체 하지말라
 臣의 아들 신인체 하지말라
 현 자리에 현 베게 베니
 원도 신도 두려운 바 없다」⁶⁹⁾
 「있는 사람일랑 있는 자랑말라
 없는 내겜랑 주노라 말라」⁷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自足的 態度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백성의 양식인 <줍쌀의 팔자>가 애달프게 느껴졌던 것이다. 海女의 노래에 無數히 나오는 돈에 對한 言及 <어찌하면 잘 살아 볼까>하는 念願은 주어진 限界에 對한 無限定的 自足을 容納할 수 없게 한다. 可能하면 桎梏에서 벗어 나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관계랑 맺거든 양반과 관계 맺어라
 상놈과 관제는 말 밭에도 노린내난다.
 양반과 관제는 말밭에도 향내난다.」⁷¹⁾

고 하면서 보다 나은 人間關係에로의 발 돌음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濟州를 벗어나 外部世界에 對한 間斷없는 憧憬으로 顯在化될 수도 있다. 이같은 憧憬은 陸地로의 進出로 具體的으로 現實化되기도 했다. 비록 빈 손으로 갔다 온다해도 육지에 나가기를 天堂을 바라보듯(…雖空往空返 得出陸地 如望天堂)⁷²⁾할 程度는 아니라 하드라도 出陸는 桎梏으로부터의 하나의 解放처럼 여겨졌음에 틀림이 없다. 仁祖때부터 200年間 強要된 出陸禁止令 그 自体가 陸地로의 流亡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流亡은 外部의 誘因보다 오히려 濟州의 内部的 狀況이 島民에게 안겨다 준 壓力에 더 起因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서울은 羨望의 對象으로 認識되었다.

서울이 <서럽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어덧양반 왔더냐」 「서울양반 왔더라」
 「어떻게나 차렸더냐」 「꽃같이 차렸더라」⁷³⁾

고 그에 對한 憧憬을 숨기지 않는다

69) 70) 71) 金榮教, 前掲書, p. 20 p. 18 p. 179

72) 金尚憲, “南槎滌” 卷之一, 담라문헌집,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p. 56

73) 金榮教, 前掲書. p. 176

「서울 육지 갔다왔으면
반가워도 밥하여 준다.
제가죽집에 갔다 온 것을
어디 좋아 밥하여주리」⁷⁴⁾

이러한 外部世界에의 羨望은 日本에의 수많은 出稼現象과도 連結된다. 1940年 頃 이미 六萬이 넘는 濟州人口가 大阪에 居住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 날에는 濟州人中에 그 친척이 일본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할 程度로 그 心理的 거리에 있어서 日本이 가깝게 認知되고 있는 것이다. 孤立된 社會의 構成員이 갖는 心理的 特性的 한 面이 內集團에 對한 強한 우리感情(we-feeling)을 나타내면서도 또 다른 面에서는 이처럼 外部에의 憧憬을 強하게 露出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外部에의 羨望과 憧憬이 바로 外部로의 進出로 連結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指摘한 濟州內部的 壓力이 보다 더 強하것 作用할 때, 또한 그 壓力을 銳角으로 받는 人口層이 于先적으로 行動化할 것임은 勿論이다. 어느 社會와 마찬가지로 濟州社會內에서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는 階層의 人口는 外部에의 羨望이 出陸으로 行動化될 可能性보다는 오히려 內集因意識으로 屈折될 可能性이 더 큰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官職에 對한 態度에서 엿볼 수 있다. 韓國社會 어디에서나 官에 對한 庶民의 恨이 있다. 될 수 있으면 官과 가까와 지려고 한다. 官職을 갖는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多幸한 일로 생각된다. 濟州도 例外일 수는 없다. 오히려 어떤 意味에서 官에 對한 傾斜은 어디보다 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南棧錄의 指摘에는 官職中에서도 中央의 京職은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濟州地方에서 權力을 行事할 수 있는 것을 더 願한다고 했다. 그러한 傾向은 오늘 날에도 殘存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出陸의 不安보다는 確保돼 있는 既得權이 더 重要하게 여겨짐을 意味한다. 이렇게 볼 때 바깥 세계에의 羨望도 어떤 限界에서 일어 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社會意識속에는 孤立된 周邊文化의 特異性이 強하게 刻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VI

지금까지 우리는 社會的 相互作用에 關한 濟州人의 社會意識을 極히 制限된 範圍內에서 散漫하게 追跡해 보았다.

그러는 동안 이러한 社會意識이 濟州島가 處해 온 自然的 歷史的 特殊 狀況 및 그에 바탕하여 形成된 基本的 퍼스널리티 構造와 不可分의 力動關係를 갖고 있음을 捕捉할 수 있었다.

濟州社會가 立地해 온 狀況의 特殊性은 于先 自然的 諸與件에서 出發한다. 韓半島와 隔離되어

74) 金榮敦, 前揭書, p. 177

中國 日本 사이에 자리잡은 그 位置上의 特色은 韓半島의 文化領域에서 相對的으로 벗어난 周邊 文化를 形成하게 한 要因으로 作用했을 뿐 아니라 또한 倭寇의 來侵을 끊임 없이 받게 된 重要 要因으로 作用했다. 더우기 瘠薄한 土質 및 氣候의 條件은 人間勞動의 比重을 絕對的인 것으로 만들었다. 生活은 곧 勞動이었다.

勞動이 絕對的인 比重을 차지하는 狀況 下에서는 精巧化된 名種 文物이 多樣하게 發達될 수가 없다. 그러한 文物은 生産勞動에서 除外된 餘暇 및 餘裕 (leisure)에 그 基礎를 두기 때문이다. 한편 獨立된 小國家로 出發한 濟州島의 特殊한 歷史狀況은 外部로부터의 被支配와 一方의 收奪로 壓縮될 수 있었다. 高麗 때부터 本格的으로 始作된 中央의 支配는 官의 橫暴가 露骨化 되는 過程에 不過했다. 이것은 거듭되는 凶年과 함께 生存을 保障받기 爲한 수많은 民亂의 重要 動機가 되었다. 100년에 걸친 蒙古의 壓制는 그 影響力이 아직도 生活遺風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歷史狀況 中에서 특히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仁祖 때부터 200年間 強要된 濟州人에 對한 出陸 禁止令이다. 地瘠民貧의 狀況을 벗어나려고 했던 出陸이 國法으로 禁止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因해 濟州人과 陸地人의 結婚까지 不可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政治領域에서는 濟州島가 李朝에 屬해 있으면서도 文化的으로는 完全히 封鎖되어 領域外에 存在하게 되었음을 意味한다.

이러한 自然的 歷史的狀況의 特異性은 濟州人의 基本的 퍼스널리티 構造에 그대로 刻印되어 나타난다. 흔히 強한 價値의 色調로 云謂되는 濟州人의 性格에서 相當部分이 狀況의 特性으로 說明될 수 있다. 가장 共通의 指摘되는 勤勉, 儉素, 自立 等の 特性도 外部環境과의 關係에서 個體가 殘存하기 爲한 必然的인 反應結果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外現的인 特質이 各各 獨立의 으로 分離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다 根源인 바탕에 基礎해 있음을 追跡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삶에 對한 <強한 現實的 志向性>이었다. 現實的인 生活이 언제나 第一義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는 濟州人의 性格上의 또 다른 諸側面을 <孤立된 周邊文化의 特異性>으로부터 類推할 수 있었다. 特定 社會가 外部로부터 孤立되는 程度가 높을수록 一般的으로 内外集團의 區別意識이 強化된다. 가끔 否定的 側面으로 言及되는 濟州人의 排他性도 孤立된 社會構成員이 共通의 으로 갖는 内外集團에 對한 強한 區別意識에서 出發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諸社會關係에 關한 濟州人의 社會意識을 家族關係 및 其他의 몇몇 特徵的인 相互作用의 類型에서 簡略하게 살펴 보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들 具體的 諸社會關係에 共通의 으로 作用하는 보다 一般的인 水準의 意識이 存在할 수 있음을 暗示했다.

그것을 우리는 濟州島 方言의 特徵的現象으로 立證하려고 했다. 尊待法이 動作의 客觀的 主體로 向하는 것보다 對話가 이뤄지고 있는 相對方에 局限되어 發達되고 있다는 事實은 單純한 尊待法의 問題를 벗어나 日常 느낄 수 있는 諸社會關係의 特色에 매우 有力한 端緒를 提供해 준다.

그것은 다름아닌 社會關係에 있어서 <現場性 乃至 現在的 狀況에의 重視>이다. 그리고 이러한 特徵은 濟州人의 基本的 퍼스낼리티 特性의 하나로 指摘한 強한 現實的 志向성과 不可分의 力動 關係를 갖는 것으로 把握된다. 勿論 우리는 이 같은 特性으로 具體的인 모든 社會的 相互作用에 關한 濟州人의 意識을 說明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社會的 相互作用은 具體的 狀況에 따라 크게 潤色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特定 社會關係는 그 特有的 反應樣式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當然하게도 우리의 視線은 몇몇 特徵的 社會關係로 돌려 졌던 것이다. 그 中에서도 先 浮刻된 것이 實際的 核家族性和 財產相續上의 均分主義으로 特徵지워지는 家族關係였다. 家族 內의 人間關係에서 시집식구에 對한 無條件服從의 程度가 陸地에 比해 낮은 것도 婦人의 親家와의 往來가 보다 容易한 것도 濟州家族制度上의 特色에서 結果되는 當然한 事實이었다. 더우기 生産勞動 및 家計에 있어서의 婦人의 깊은 關與는 男便과의 關係에 그대로 반영된다. 女性 特有的 奉仕的 行爲樣式이 精巧化되어 있지 못한 점은 조그만 一例에 不過하다. 보다 重要한 側面은 婦人이 男便에 對해 갖는 意識上의 相對的 獨立性이다. 이것은 勿論 婦人의 勞動 및 家計生活에서의 位置에서 비롯된다. 勞動量의 過重은 子女의 養育(socialization)에도 有形無形으로 作用하여 初期부터 어린이는 매우 獨立的으로 社會化되는 傾向이 보이며 子女에 對한 干涉도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뿐만아니라 一般的 水準의 男女關係에 있어서도 性別 區分에 立脚한 傳統的 內外觀念이 그렇게 큰 拘束力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 또한 生産勞動에서 派生된 女性의 社會活動에 起因한다. 한편 우리는 外地에 對한 濟州人의 意識이 兩面的인 것임을 感知할 수 있었다. 濟州島 特有的 內集團意識이 外地人 및 그 文物에 對한 強한 拒否 反應으로 나타나면서도 外部에 對한 羨望 亦是 그에 못지 않게 潛在되어 있음을 捕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羨望은 內部的 狀況이 주는 壓力에 더 크게 依存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出稼人口의 大部分이 下位階層이었다는 事實, 官職에 對한 態度에서도 類推할 수 있었듯이, 濟州社會 內에서 既得權이 保障될 경우 이러한 羨望도 屈折되어 內集團 意識의 強化로 外現化될 可能性이 높다는 事實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처럼 名種 社會關係에 따라 特有的 反應樣式이 顯在化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들 諸社會關係의 背後에 相互作用에 關한 一般的 水準의 意識이나, 基本的 퍼스낼리티 構造가 力動的으로 作用함을 感知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推定한 前記의 諸特性이 一定한 範圍內에서나마 그 妥當性을 갖는다면 그것은 濟州의 社會文化的 動態를 把握하는 데 또 다른 하나의 視角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濟州島와 같이 長期間 相對的으로 孤立된 文化가 急變하는 狀況 속에 露出되어 있을 때 그 變化의 動態는 既存의 潛在된 意識의 分析없이는 결코 立體的으로 照明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Summary—

A Study on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of Social Interactions

Park Jae-hwan

Cheju islanders have lived under exceptional situations. First of all, we can point out the unique natural condition of Cheju island mainly from geographical isolation, poor soil, and windy, humid climate. Geographical isolation from the mainland, Korean peninsula, resulted in quite frequent invasion from outside especially from Japanese invaders, and the cultural isolation from the mainland. But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e poor soil and windy, humid climate of this island. Every products from soil were too short. Another inherent condition of Cheju Island comes from its historical experiences. Although this island had started as an independent country, its history was characterized by the invasion and severe exploitation from outside.

To escape these undesirable conditions many inhabitants left this island. But even this kind of trial was blocked by law (1629—1830). Moreover the marriage between an islander and a mainland inhabitant was prohibited by this law. These special situations might condition the modal personality structure of Cheju islanders' and their consciousness of social interactions. From the analysis of some kinds of folklore-data, considering the unique conditions of Cheju island, we may deduc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heju islanders' modal personality and their consciousness of social interactions are as follows:

- 1) The so-called positive aspects of Cheju islanders' modal personality are diligence, frugality and self-reliance.
- 2) Inferior complex, close-mindedness and exclusivism are indicated as negative aspects of it.
- 3) But all of these traits have been resulted from this islanders' unique experiences, and are not separate themselves in nature.
- 4) Diligence, frugality and self-reliance are only the manifest aspects of the deeper trait: the strong tendency to accept the reality of life.

5) On the other hand, inferior-complex, closed-mindedness and exclusivism comes from the characteristics of its isolated culture.

6) In Cheju dialect, the honorific mood by finite verbal endings is mainly the hearer-oriented honorific system whereas the speaker-oriented honorific system has not yet been established.⁷⁵⁾

7) From this finding, we may also infer Cheju islanders' general tendency of social interactions: The Emphasis on Right Now or Present Situations

8) Wife is not so subordinate to husband's family, and husband-wife relation seems impartial.

9) This has resulted from wife's deep participation in productive labour and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of this island.

10) Socialization of children seems more independent and liberal than that of the mainland.

11) Women are self-reliant, and the Confucious value system about sex roles has not so restricted the general relation between man and woman.

12)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of outworld is ambivalent: envy and exclusivism.

13) If one has some kinds of vested rights in his community, his envy toward the outworld often bends to stronger in-group consciousness.

Of course, these tentative deductions are never sufficient to grasp Cheju islanders' consciousness of social interactions. However, we may assume that these results give some kinds of suggestions fore more detailed analysis of reality at least.

本稿는 省谷學術文化財團의 1977年度
研究補助費에 依한 것임

75) Hyun, Pyung-hyo, "A study of Finite Verbal Endings in Che-ju Island Dialect"
Tong-kook Univ, Dissertation, 1974. p.146